

전주시 '동네 작은 실험실' 사회 변혁 꿈꾼다

지역 문제 주민 스스로 해결 '리빙랩 프로젝트' 본격 추진 환경·공동체 등 18개팀 참여

전주시가 '동네 작은 실험실'로 사회 변혁을 꿈꾼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고질적인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해결하는 '리빙랩(Living Lab·생활실험실)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리빙랩은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는 것으로, 최근 혁신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시민 공모를 통해 플라스틱을 대체할 텀블러 개발, 취업 지원생을 위한 정장 무료대여 사업,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 길고양이 문제 해소 등 총 18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공모에 참여한 28개 프로젝트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18개 팀은 내년 2월까지 90일간 청년·환경·공동체·여성·성평등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전개한다.

프로젝트는 자유주제와 기획주제, 프로토타입 등 3개 분야로, 자유주제는 다양한 주제로 선정된 8개 프로젝트에 대해 각 1000만원이 지원된다.



전주시가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사회 문제해결 생활 실험실 공모를 추진, 최종 18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한다.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리빙랩프로젝트 사전워크숍. <전주시 제공>

기획주제는 청년·환경·성평등에 대한 8개 프로젝트로 각각 2000만원이 지원되며, 프로토타입은 시제품 제작 2개 프로젝트에 각각 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청년팀 놀라스틱은 '텀블러가 불편한 당신에게'를 주제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플라스틱 대체 텀블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해피나비 프로젝트팀은 길고양이 문제 해소를 위해 캣맘들의 소통과 공유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또 강성훈 서점 카프카 대표는 '첫뚱자가 되어주세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신인작가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시민과 신인작가와의 만남, 낭독회 등을 진행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주시사회혁신센터는 전문가 컨설팅단을 구성,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주민주도 생활 실험과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나선 방침이다.

양도식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리빙랩 프로젝트는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의 일상을 바꿔보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그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실험에 도전하는 팀들은 평소 고민하던 문제를 이번 프로젝트에 담아 전주의 변화를 모색하는 혁신을 시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혁신 주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고창군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난 22일 실시했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 해리면 분소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농기센터 농기계임대사업 관리자와 농민들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교육에서는 유동주 농기계수리전문경력관이 농기계의 위험성과 안전사고 예방 방법, 농기계 조작법에 대해 특강을 펼쳤다.

특히 농기계조작 미숙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굴삭기, 트랙터와 관리기, 콩 탈곡기, 망속작물수확기 등의 농기계 조작요령을 교육했다.

한편 고창농기센터는 64종 444대 농기계를 비치해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고창=박정진 기자 phj@

도로공사전북본부 '안전피미착용 촬영시스템' 구축

한국도로공사전북본부가 전국 최초로 '본선 안전피 미착용 촬영 시스템' <사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안전피 착용 활성화에 앞장선다.

도로공사전북본부는 지난 9월 29일부터 전 좌석 안전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달 중 호남지선 18.2km(논산)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한 달 간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말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본부는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안전피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 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사망자수는 25명, 지난해 26명, 올해 현재까지 18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의 안전피 계도에 스마트한 최적의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고속도로 본선에서 경찰 인력에만 의존해 안전피 미착용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보고 경찰청의 사전 협조를 받아 전국 최초로 시스템을 개발 및 시범 운영하게 됐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주민 설명회'

27일부터 군산 등 4곳서 개최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과 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27일 군산을 시작으로 김제, 부안, 전주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알리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전북도가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방조제

내측 태양광 중심의 3GW급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고, 새만금 개발청장이 직접 주민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진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이번 주민 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이달말까지 일제단속

순창군이 이달 말까지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순창군에 따르면 10월 기준 자동차세 체납은 2330건 1억9000만원이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2회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은 181명 1억3300만원이다.

군은 미납자를 대상으로 일괄 독촉장을 발송했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 압류 예고와 더불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를 실시한바 있다.

이번 체납차량 영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

남원시 'K-스포노믹스 대상' 최고 영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남원시가 한국스포츠경제와 한국스포츠산업협회가 주최·주관한 'K-스포노믹스 대상' 최고의 영예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상을 수상했다.

시는 스포츠에 대한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노력했다.

그 결과 2015년 26개 대회수준에서 2018년 43개대회를 개최하는 양적 성장과 함께 참가자수도 3만7000여명에서 5만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 천혜의 지리산 고지대 자연 자원에 고원훈련장 시설을 이용해 중장거리 육상 전지훈련, 유소년 축구 동계훈련 등 전지훈련에 따른 지역경제 창출 효과도 2014년 15억원에서 2018년 35억원으로 두배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얻었다.

시는 국내 유일의 국제 블라디보 및 검도대회 개최, 바둑을 통한 훈항의 세계화, 그리고 중국과의 꾸준한 교류를 통한 중국 관광객의 유치 등이 이번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스포츠 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인 만큼,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리산권 스포츠 중심도시 남원의 위상을 높여 나갔다고 밝혔다.

시는 2018년부터 춘향골체육공원 일원에 20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영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축구장 등 신규 체육시설을 확대조성하고 있으며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유치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리산권 스포츠 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간다는 계획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정읍시, 로컬푸드 참여농가 대상 역량강화 교육

정읍시는 로컬푸드 참여농가의 역량 강화 교육을 지난 22일 제2청사 대강당에서 실시했다.<사진>

이번 교육은 로컬푸드 참여농가 15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 김길용 전남대 교수는 기능성 미생물이 작물의 성장과 병해충 방제

에 미치는 영향을 강연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 적극 앞장서고,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판매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공유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6000만원, 평당 20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